

【사회복지과】

○ 법인보육시설 운영상 문제점

- 김 동 숙 의원 -

□ 施 設 現 況

시 설 명	소 재 지	시설장	설립년월일	비고
총 7 개소				
예산어린이집	예산읍 신례원리 552-18	안성진	'91. 3. 4	
무한어린이집	예산읍 주교리 498-5	유미연	'93. 9.27	
예원어린이집	예산읍 창소리 400-1	김중환	'94. 1.19	
오가어린이집	오가면 역탑리 150	강영자	'94. 1. 5	
한내어린이집	고덕면 대천리 668-1	임희영	'96. 3. 9	
신나라어린이집	삽교읍 두리 591-1	신은호	'96. 4.19	
평강어린이집	대술면 산정리 332-1	김미숙	'98. 1.28	

□ 문제점 및 대책

○ 유아편중 이용

- 보육시설의 주이용대상은 0세부터 취학 1년전 영유아이지만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 대상이 유아들로 편중되어 있고 영아의 이용률이 저하되어 보육시설 설치의 주목적에 부합되지 않음

→ 이에 2003년도 신규시설설치 희망자에게는 영아전담시설로의 전환을 권유하고 기존 시설이 영유아별 반 유형에 영아정원을 확보하는 경우 영아반 담당교사의 종사자인건비 지원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영아의 시설 이용률을 점증적으로 늘려갈 계획임.

○ 조리사 자격취득자 채용 규정의 불합리

-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조리원을 조리사 자격취득자로 채용해야한다는 법적의무규정이 없어 대부분 시설이 조리에 대한 별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채용하여 위생상의 문제점은 없지만 성장기 영유아들에 대한 식중독 및 급식 관련 문제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.

→ 보육시설 조리원 채용시 조리사 자격취득자의 채용 또는 기 채용된 조리원이 자격 취득 시험에 응시토록 시설장에게 권고하고 종사자 인건비 중 조리원의 봉급 기준액을 상향조정토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조리사 자격취득자의 보육시설로의 취업희망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.